

LS그룹, 美 전력 인프라 4조 베팅… 전선·변압기 투자 가속

해저케이블공장 착공으로 생산력 증대
데이터센터 전력증가 초고압 수주 확대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추진 사업 강화
AI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LS그룹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에 발맞춰 전선·전력설비 투자를 대폭 강화하며 북미 전력 인프라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인프라 분야에만 약 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며 중장기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미국 내 수주 확대와 생산계획 증가에 맞춰 지난 달 25일 이사회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확정했다. 지주사 LS가 보통주 169만4915주를 주당 8만8500원에 인수하며 마련된 자금은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 투입된다. 공장은 버지니아주 체사피크 엘리자베스강 유역에



LS전선 미국 자회사, LS그린링크의 미국 버지니아주 해저케이블 공장 조감도. /LS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시설로, 생산설비와 초고층 수직연속압출시스템(VCV)타워, 전용 부두까지 갖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총 7500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으로, 2023년 의사결정 이후 부지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근 착

공에 돌입했다. 이번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을 선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미국 현지에서 배전 공장을 가동 중인 LS일렉트릭도 초고압 변압기 수주

가 이어지며 북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최대 민간 전력 유틸리티와 4598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설비는 동남부 지역에서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LS일렉트릭은 기존 115kV·354kV 중심에서 525kV급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하며 현지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LS그룹은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전력설비 수요 증가에 맞춰 권선 제조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출력 특수 권선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북미·유럽·아시아 등 11개국에 생산 거점을 둔 에식스솔루션즈는 테슬라,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I 기반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그룹 실적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주사 (주)LS의 올해 영업이익은 1조439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망치가 실제로 집계될 경우 지난해(1조87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 클럽'에 진입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선·전력기기 중심의 북미 사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계열사 실적 기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확대되면서 초고압 변압기와 해저 전력케이블 투자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LS그룹처럼 생산 설비를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기업들이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IoT 폭증이 만든 '저전력 반도체' 붐… MCU·센서 수요 급부상

IoT 확대로 성숙공정 수요 확대
MCU·센서 중심 시장 성장 지속
삼성·SK, 저전력 제품 전략 강화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급이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저전력 마이크로컨트롤러(MCU)와 센서, 저용량 메모리 등 소형 반도체 중심의 신규 수요축이 부상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인공지능(AI) 서버 중심의 고성능 메모리 사이클과는 별도로 성숙공정 기반 디바이스 수요가 독립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전 산업용 설비 웨어러블을 중심으로 IoT 디



Chat GPT로 생성한 사물인터넷(IoT) 도식.

바이스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관련 반도체 산업 소비가 기존 모바일·PC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저전력 무선통신칩과 센서 모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IoT 기기 규모가 수십억 대 단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oT 애널리틱스는 2024년 전 세계 연결된 IoT 기기 수를 185억 개로 추산하며 2025년 211억 개(14% 증가)를 거쳐 2030년 390억 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IoT 연결의 상당수가 Wi-Fi·블루투스·셀룰러 IoT 기반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저전력 반도체 중심의 수요 구조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IoT 단말 확대는 관련 반도체 시장의 외연도 넓히고 있다. 센서·MCU·무선칩 등 다품종 저전력 칩 위주로 구성된 IoT 기기의 특성상 생산·투자축이 선단 미세공정보다는 성숙공정 기반 제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들은 IoT용 칩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2024~2029년 기준 두 자릿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IoT 전용 MCU 시장은 같은 기간 연 15% 안팎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저전력·성숙공정 기반 수요 변화에 맞춘 제품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28나노FD-SOI 공정

에서 eMRAM을 양산하며 MCU·IoT·AI용 저전력 임베디드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LPDDR5X·LPDDR5T 등 차세대 초저전력 모바일 D램을 선보여 스마트폰과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저전력 메모리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IoT 기기 확산은 단순히 단말 수 증가를 넘어 생산 생태계를 성숙공정 중심으로 일부 끌어당기고 있다"며 "고성능 반도체 투자가 집중되는 와중에도 저전력·아날로그·센서 등 관련 수요 역시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 1면 '삼성·SK, 차세대…'서 계속

카톡 논란 정리되자 AI전환 속도… '정신아 체제' 본격 시동

사법 리스크 완화로 경영 환경 안정
AI서비스 확산으로 플랫폼 동력 강화

카카오가 사법리스크와 카카오톡 관련 논란 등 주요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정신아 대표 체제의 인공지능(AI) 중심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과 서비스 통제가 잇따라 공개되며 카카오의 경영 환경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이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검찰의 압박성 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검찰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으며, 2심 재판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1심 판결을 통해 카카오 경영진의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한 차례 정리된 만큼 법적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완화된 상황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카카오톡을 둘러싼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보였다. 와이즈앱·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지난해 8월 4819만명에서 10월 4797만명으로 0.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통계상 오차 범위 수준으로,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제기된 이용자 이탈 우려가 실제와는 달랐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네이트온의 MAU가 일시 증가했지만 전체 이용자는 약 55만명에 불과해 카카오톡과는 수백만명 단위의 격차를 보였다.

카카오는 개편 이후 제기된 사용자의 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기존 '친구 목록' 기반 첫 화면을 복원하는 업데이트

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핵심 기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재무 성과도 공식 수치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카카오는 지난해 3분기 매출 2조866억원, 영업이익 208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광고 매출 증가와 금융 자회사 실적 개선이 실적 반등을 견인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AI 사업에서는 이용 지표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챗GPT 포 카카오'를 출시해 카카오톡 상단에 챗GPT 기능을 배치했다. 대화 중 질문·검색·답변 공유를 즉시 수행하도록 설계된 해당 기능은 출시 10일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기록했다. 플랫폼 내 AI 기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성과다.

카카오는 AI 기반 일정 추천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올해 1분기 중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대화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3일 열린 이프 카카오 2025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카카오

맥락을 분석해 일정 생성과 추천을 자동화하며, 카카오톡 내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기존 사업 기반 재정비를 마쳤다"며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적 리스크와 서비스 논란이 통계와 판결을 통해 정리되면서, 카카오는 올해 AI·플랫폼 중심의 전략 추진에 한층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HBM4, 전력효율 40% ↑ I/O·대역폭 2배확대 적용

SK하이닉스의 HBM4는 이전 세대인 HBM3E 대비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끌어올리는 연구개발 성과를 거뒀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4를 최초로 납품하는 계약을 확보한 바 있다.

HBM4 베이스 다이 생산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전략을 택한 점도 눈길을 끈다. HBM을 구성하는 개별 D램 칩은 '코어 다이'라고 불리며 이 가운데 가장 아래층에 있는 칩을 '베이스 다이'로 구분한다.

삼성전자는 자사 파운드리 4nm 공정을 이용해 HBM4 베이스 다이를 생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SK하이닉스는 HBM4 베이스 다이 생산을 대만 TSMC에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